

#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공간적 입지 행태와 요인 :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지윤(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4기, freegia21@hanmail.net)

현대의 경제공간에서 경제활동 주체들의 입지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경제공간은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나 경제 구조 혹은 사회문화의 변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고 재구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입지연구의 패러다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현대 경제공간은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에 이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통신 혁명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혁신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현대 경제공간에서의 새로운 산업체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식이나 정보의 개발 및 연구 활동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과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특히 공간적 입지 패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연구개발 활동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입지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따른 입지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고 각각의 입지 인자들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공간적 입지 패턴 모형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해외지역은 제외시켰다. 자료 분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9,535개의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회사연감(2002)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기업의 본사 데이터와 생산시설 데이터를 구축하여 약 2만 여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상당수가 수도권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특성을 기업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특정 요인들의 상이한 공간적 입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의 추출, 통합 작업을 통해서 4가지 형태의 연구개발 입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